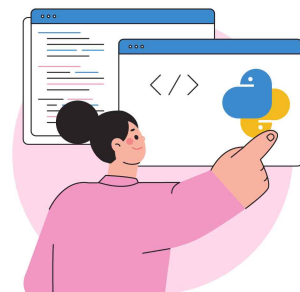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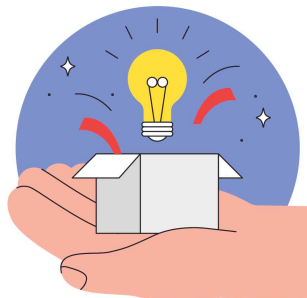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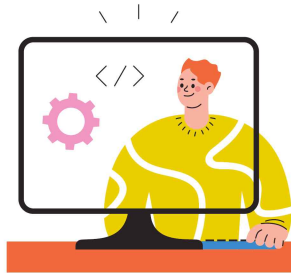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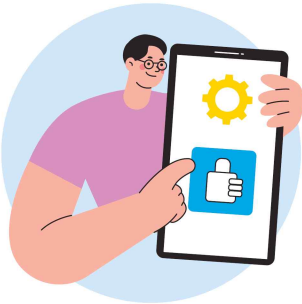


미래 청소년활동 전환 준비 조사 사업 Vol. 3

청소년활동을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과 연결하려면, 청소년지도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



주요결과

청소년활동을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과 연결하려면, 청소년지도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

목적

-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22.10.6.,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발표
- ☑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현장과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2. 11. 16.(수) ~ 11. 18.(금)
- ☑ (조사대상) 전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508명
-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내용) 청소년활동과 교육과정과 연계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니즈 파악

분류	조사내용	문항 수
인식	미래사회 요구될 지도자역할, 미래교육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3
실태	학교연계 추진 유무, 추진학교 교급, 연계 교육과정, 연계미추진 사유, 학교연계 재원확보, 학교 운영시스템 인지도부, 자원연결 방법, 학교연계 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	8
요구	교육과정과 연계협력 필요, 학교연계 시 필요한 지원 학교에 상시적으로 활동정보 제공시 도움정도,	3
인구통계	지역, 지역규모, 기관유형, 근무경력, 연령	5

- ☑ (분석방법) SPSS 28.0패키지를 활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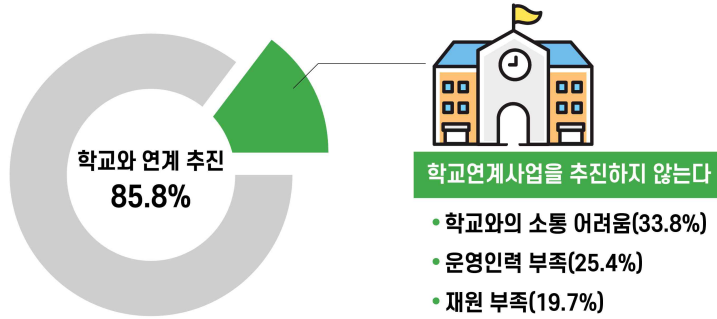
응답 결과

- ☑ (응답결과) 총508명 참여 *17개 시·도 청소년지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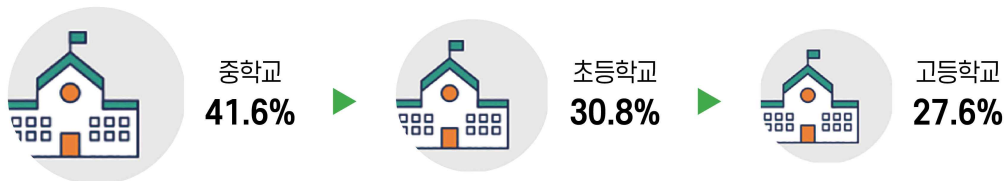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특화 시설	기타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315	167	13	13	508명	251명	175명	82명
(62.0%)	(32.9%)	(2.6%)	(2.6%)	(100%)	(49.4%)	(34.4%)	(16.1%)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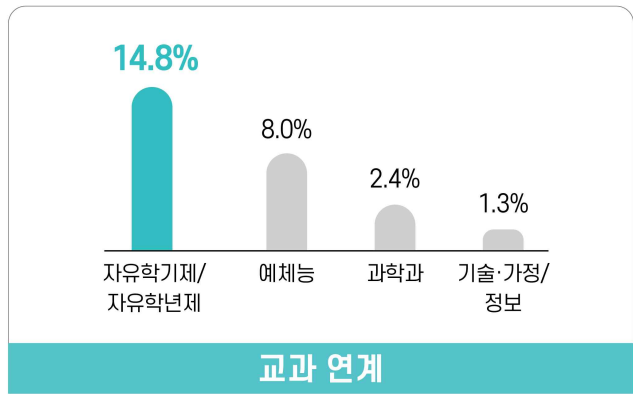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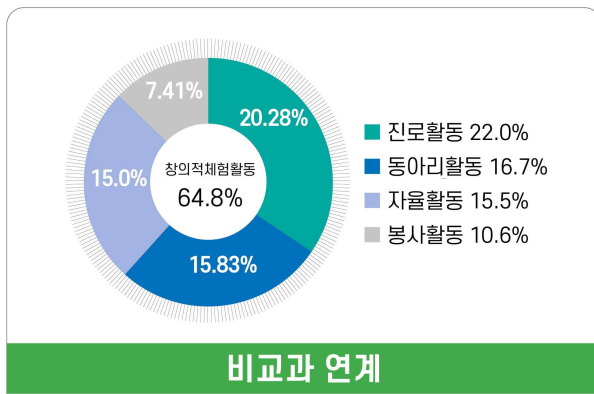
1. 학교와의 연계사업 추진 유무



2.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급



3. 교육과정과 주로 연계하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4.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상위 Top 4개)

청소년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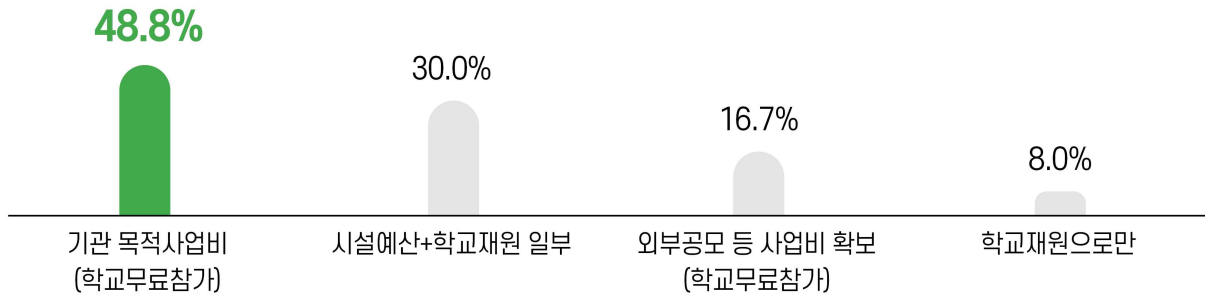
1 학교로 직접 공문, 전화 등 연락으로 추진	29.9%
2 전년도 협력학교와 계속사업으로 추진	21.4%
3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추진	15.9%
4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홍보	13.0%

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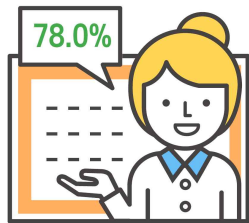
1 혁신지구, 교육청, 기관 등 공문을 보고 신청	19.8%
2 같은 학교 동료교사 협력	18.4%
2 지역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인력 및 자원풀 활용	18.4%
4 지역 내 청소년시설 단체의 학교연계사업 담당자를 통해 추진	13.0%

주요결과

5. 학교 교육과정 연계 자원 확보 방안



6. 교육과정과 학교밖 자원 연결 필요성



청소년지도자
7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5점 기준 4.15점)



교사
76.8%(5점 기준 시 4점)가
필요하다고 응답

7.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학교 운영시스템 인지 정도



- **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8.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함.(5점 기준 3.05점)

8.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상위 Top 4)

지도자·기관차원의 접근보다는 중앙차원에서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구조 마련	1위	24.0%
학교 대상 청소년활동시설 인지도 제고 종합적 홍보	2위	18.8%
사업 운영 예산 지원	3위	13.0%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 시스템 관련 지도자 대상 교육·워크숍	4위	12.1%

주요결과

9. 학교/학교밖 자원과 연계협력을 하기 어려운 점(장애요인) (상위 Top 5)



청소년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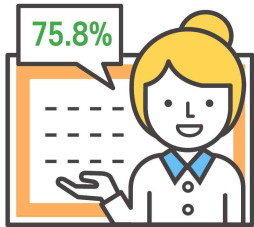
1	청소년지도자·청소년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	18.0%
2	부족한 자원	13.8%
3	안전사고 문제로 학교밖 활동 비선호	13.2%
4	학교시스템에 대한 정보 이해 부족	12.1%
5	지도자 개별적 접근 한계	11.7%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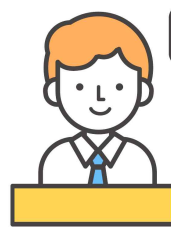
1	행정업무 과다	22.1%
2	교사 개별적 접근한계	14.3%
3	안전사고 발생우려	14.1%
4	학교밖 활동 프로그램 정보 부족	13.7%
4	부족한 예산	13.7%

10. 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정보 안내 시 도움 정도



청소년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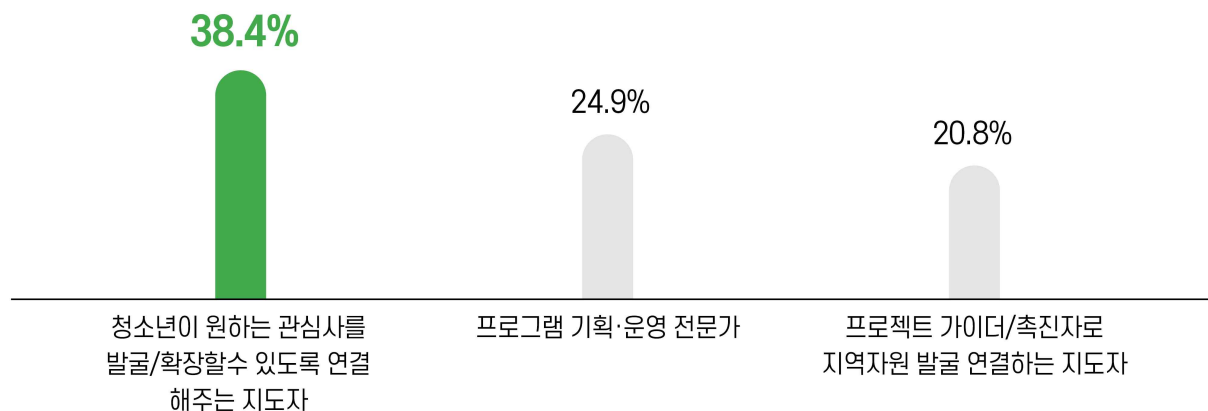
75.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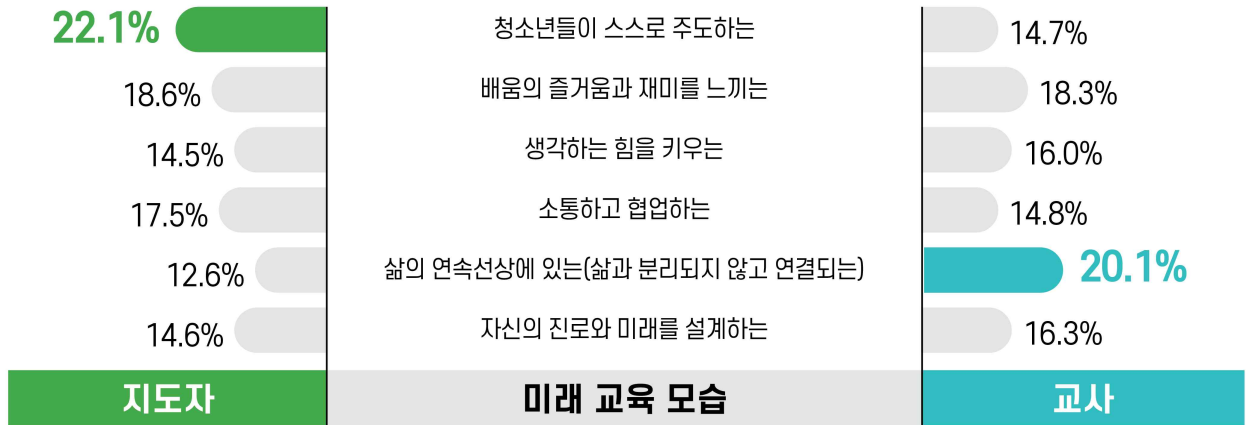
76.8%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11.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지도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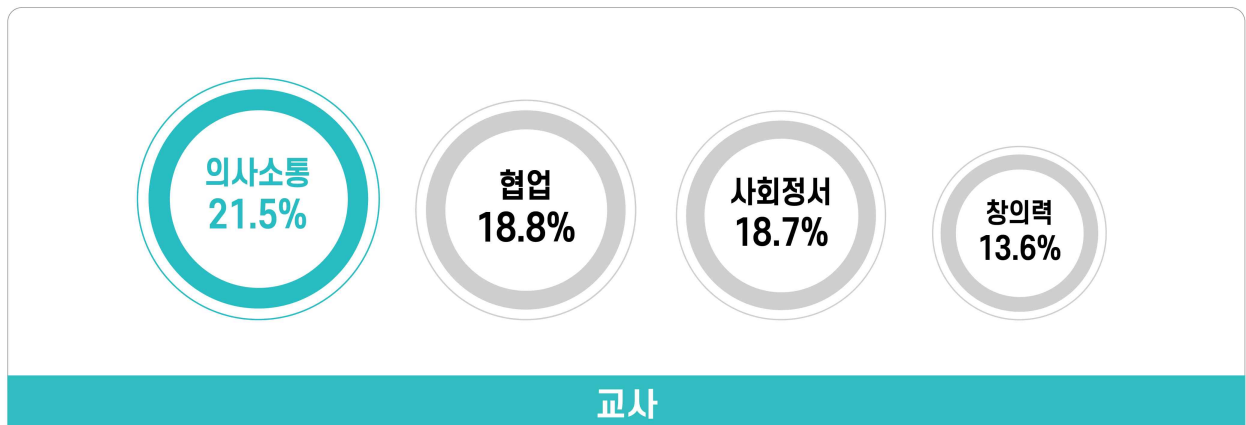


주요결과

12. 앞으로의 미래교육 모습



1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상위 Top 4)



문항별 결과

Q1 귀 기관은 올해 학교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나요?

응답자 508명 중 '학교 연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가 85.8%로 나타남.

〈표 1〉 학교 연계 사업 유무

(N=508)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예. 학교연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36	85.8
아니오,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72	14.2
합계	508	100

Q1-2 (미추진 기관 대상) 학교연계 사업 미추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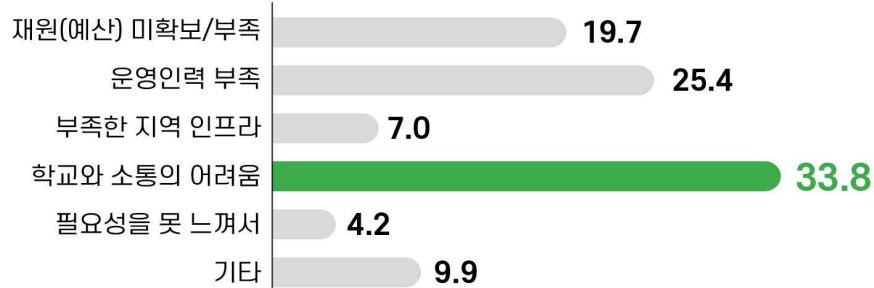
'학교 연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4.2%(72명)의 경우 미추진 사유로 '학교와 소통의 어려움(33.8%)', '운영인력 부족(25.4%)', '재원(예산) 미확보/부족(19.7%)' 순으로 응답함.

〈표 2〉 학교연계 미추진 사유

(N=71)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③재원(예산) 미확보/부족	14	19.7
②운영인력 부족	18	25.4
부족한 지역 인프라	5	7.0
①학교와 소통의 어려움	24	33.8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4.2
기타	7	9.9
합계	71	100

단위(%)



[그림 1] 학교연계 미추진 사유

문항별 결과

Q2 올해 학교 연계사업을 추진한 학교의 교급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41.6%)', '초등학교(30.8%)', '고등학교(27.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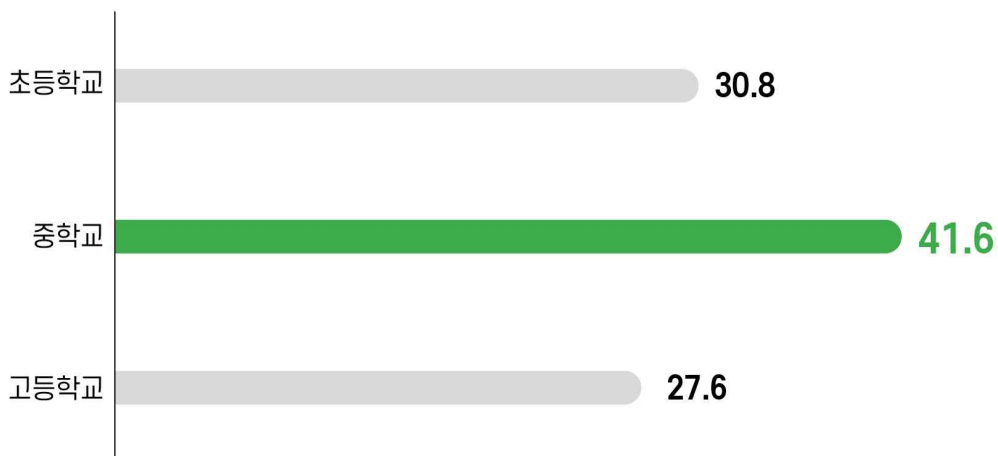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부산/울산/경남에서 '중학교'의 비율이 각각 48.1%, 47.4%, 47.2%로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3〉 연계사업 추진 학교 교급(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초등학교	283	30.8	64.9
중학교	382	41.6	87.6
고등학교	253	27.6	58.0
합계	918	100	210.6

(단위: %)



[그림 2] 연계사업 추진 학교교급

문항별 결과

Q3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었나요?

- 비교과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64.8%로 가장 많이 연계하였으며, 창의적체험활동의 경우 '진로활동(22.0%)', '동아리활동(16.7%)', '자율활동(15.5%)', '봉사활동(10.6%)' 순이었음.
- 교과 연계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14.8%)', '예체능(8.0%)', '기타(3.0%)', '과학과(2.4%)', '기술 가정/정보(1.3%)', '사회과/도덕(1.2%)', '고교학점제(1.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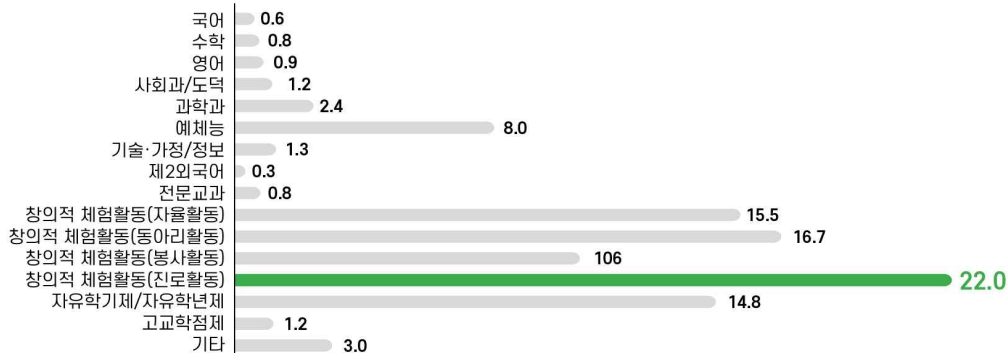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의 비율이 각각 27.4%, 26.7%, 26.2%로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4〉 연계사업 추진 교육과정

구분	빈도(응답 수)	비율(%)	케이스중 비율(%)
국어	7	0.6	1.6
수학	9	0.8	2.1
영어	11	0.9	2.5
사회과/도덕	14	1.2	3.2
과학과	29	2.4	6.7
예체능	95	8.0	21.8
기술·가정/정보	15	1.3	3.4
제2외국어	4	0.3	0.9
전문교과	9	0.8	2.1
③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184	15.5	42.2
②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198	16.7	45.4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126	10.6	28.9
①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261	22.0	59.9
④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176	14.8	40.4
고교학점제	14	1.2	3.2
기타	36	3.0	8.3
합계	1,188	100.0	437.88



[그림 3]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문항별 결과

Q4 학교연계 사업 추진 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기관 목적사업비 확보(학교무료 참가)(40.8%)’, ‘시설 예산+학교 자원 일부(30.0%)’, ‘외부공모 등 사업비 확보(학교무료 참가)(16.7%)’, ‘학교 재원으로만(8.0%)’ 순으로 나타남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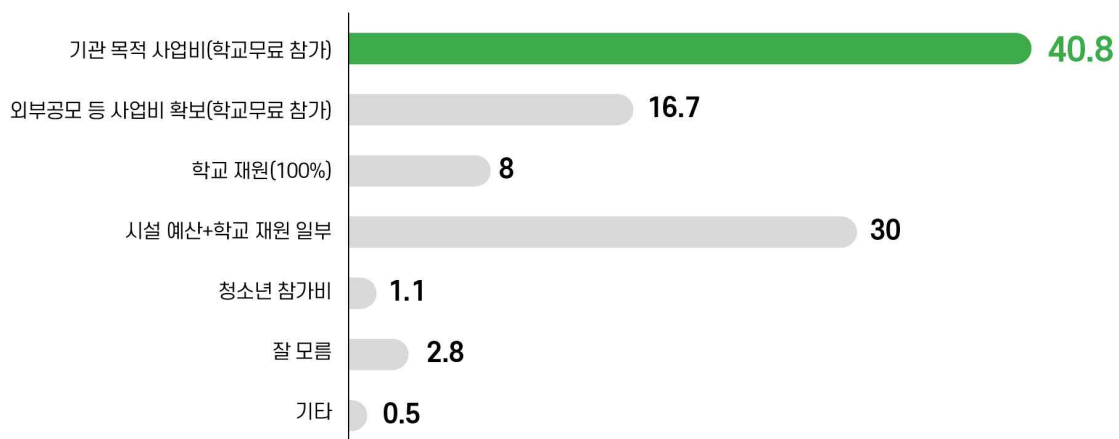
지역별	대구/경북과 인천/경기 지역의 ‘기관 목적사업비(학교 무료참가)’ 비율이 각각 57.1%, 55.2%로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시설예산+학교 자원 일부’가 40.7%로 높았음
지역규모	‘기관 목적사업비(학교 무료참가)’의 비율은 중소도시(49.6%), 군(읍면)지역(47.1%), 대도시(33.5%) 순임

〈표 5〉 학교연계 시 자원 확보 방안

(N=436)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①기관 목적 사업비(학교무료 참가)	178	40.8
③외부공모 등 사업비 확보(학교무료 참가)	73	16.7
학교 재원(100%)	35	8.0
②시설 예산+학교 자원 일부	131	30.0
청소년 참가비	5	1.1
잘 모름	12	2.8
기타	2	0.5
합계	436	100

(단위: %)



〔그림 4〕 학교와 연계 사업 추진 자원 확보 방안

문항별 결과

Q5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긍정응답(매우필요+필요)’이 **78.0%**로 대다수가 연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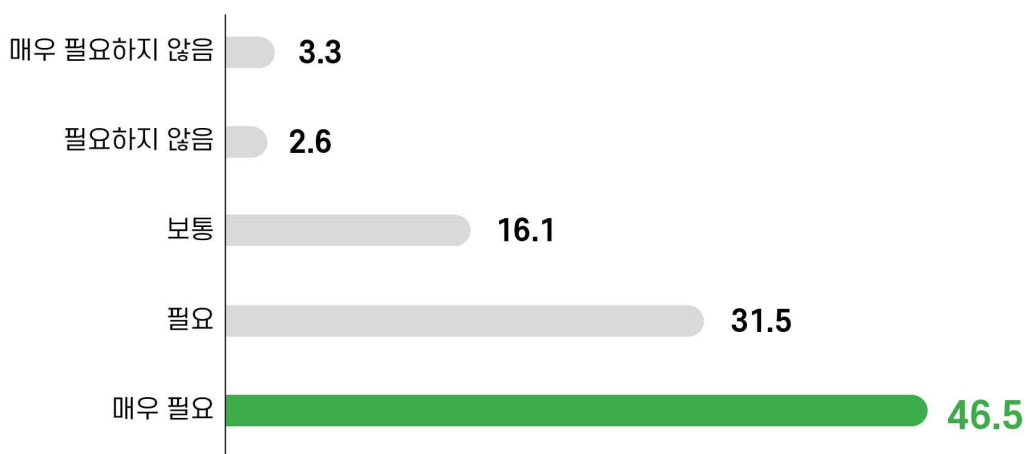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 지역의 긍정응답이 각각 82.3%, 81.3%로 타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68.4%로 가장 낮았음
근무경력	근무경력에서는 10년이상~15년 미만의 긍정응답이 84.6%로 높게 나타남

〈표 6〉 학교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과 연결 필요성 (N=508)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매우 필요하지 않음	17	3.3
필요하지 않음	13	2.6
보통	82	16.1
필요	160	31.5
매우 필요	236	46.5
합계	508	100

(단위: %)



[그림 5] 학교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 연결 필요성

문항별 결과

Q6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운영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나요?

‘보통’(38.8%), ‘알고 있음’(29.1%), ‘잘 모름’(23.8%), ‘거의 모름’(4.3%), ‘매우 잘 알고 있음’(3.9%)’으로 나타남.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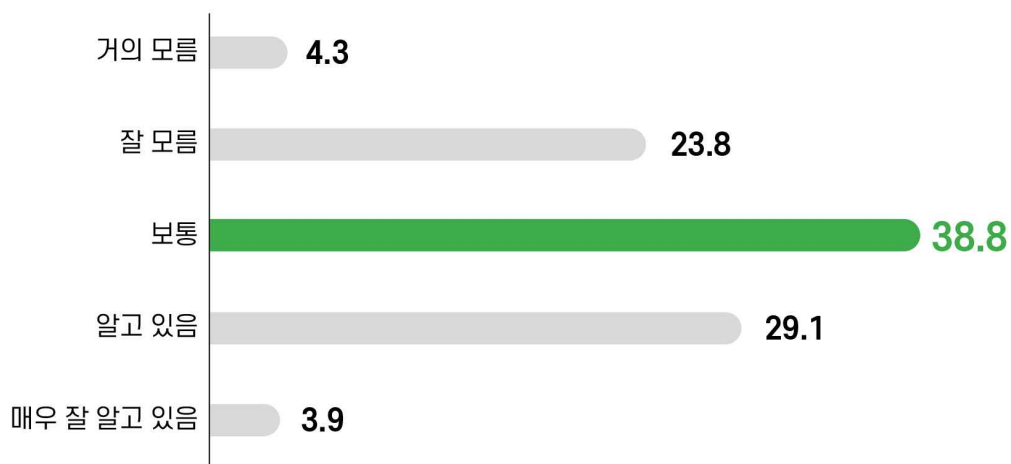
지역 별	서울 지역의 경우 긍정응답이 37.8%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았으며, 반면,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경우 긍정응답 비율이 20.8%로 가장 낮았음
근무경력	‘1년 이상~5년 미만’일 때 긍정응답이 24.7%로 가장 낮지만, 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령 별	30대의 경우 긍정응답이 27.8%로 가장 낮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 시스템 인지 정도

(N=508)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거의 모름	22	4.3
잘 모름	121	23.8
보통	197	38.8
알고 있음	148	29.1
매우 잘 알고 있음	20	3.9
합계	508	100

(단위: %)



〈그림 6〉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스템 인지

문항별 결과

Q7

기관에서 학교밖 지역자원을 학교와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학교로 직접연락(공문발송, 전화 등 비대면)을 해서 추진(29.9%)’이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서 매년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 협력 학교와 운영(21.4%)’,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추진(15.9%)’ 등 순으로 나타남.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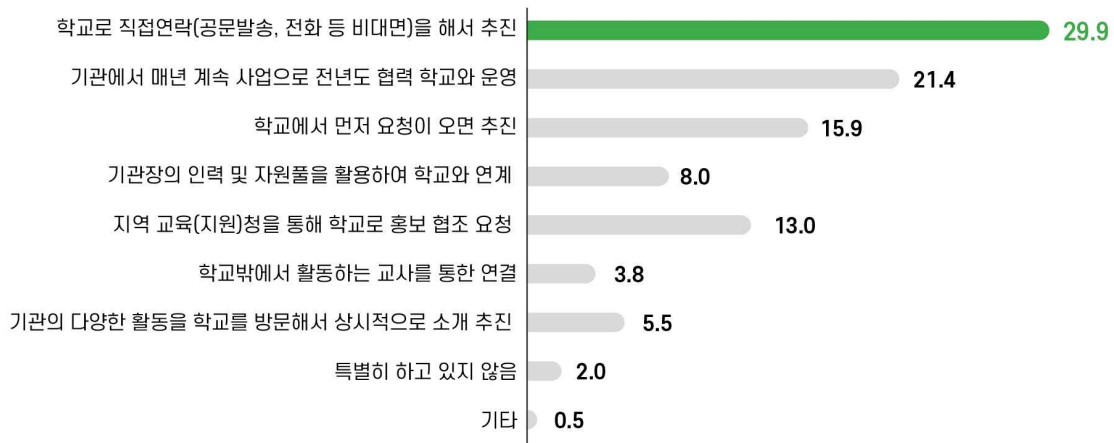
지역 별

대전,세종,충북,충남의 ‘학교로 직접 연락(공문발송, 전화 등 비대면)을 해서 추진’ 비율이 40.0%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8〉 학교와 학교밖 지역자원 연결 방법(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응답수)	비율(%)	케이스 중 비율(%)
① 학교로 직접연락(공문발송, 전화 등 비대면)을 해서 추진	383	29.9	75.4
② 기관에서 매년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 협력 학교와 운영	274	21.4	53.9
③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추진	203	15.9	40.0
기관장의 인력 및 자원풀을 활용하여 학교와 연계	102	8.0	20.1
④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홍보 협조 요청	167	13.0	32.9
학교밖에서 활동하는 교사를 통한 연결	49	3.8	9.6
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를 방문해서 상시적으로 소개 추진	71	5.5	14.0
특별히 하고 있지 않음	25	2.0	4.9
기타	6	0.5	1.2
전체	1,280	100.0	252

(단위: %)



〔그림 7〕 학교와 학교밖 지역자원 연결 방법

문항별 결과

Q8 학교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18.0%)’이 가장 많았으며, ‘부족한 예산(재원)(13.8%)’, ‘학교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학교밖 활동 선호하지 않음(13.2%)’, ‘학교 시스템(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12.1%)’, ‘지도자 개별적 접근 한계(11.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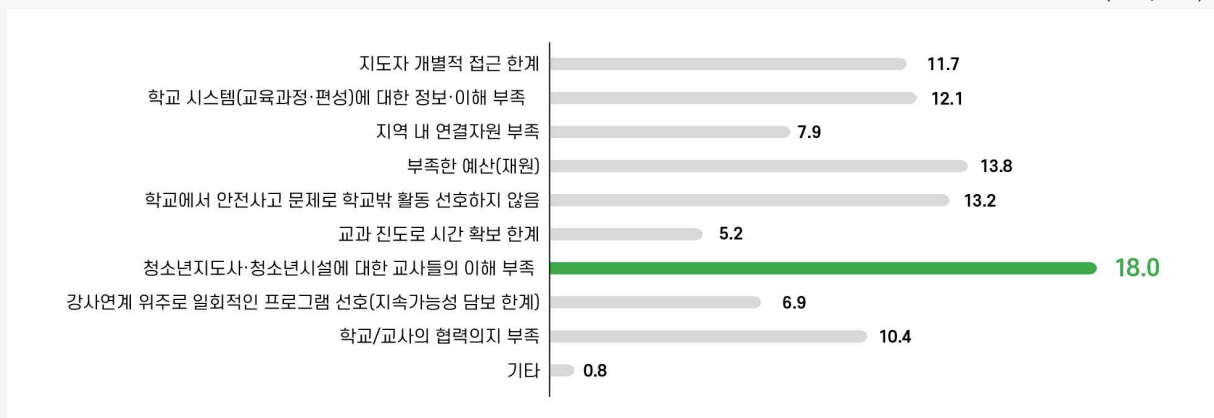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대구/경북의 ‘청소년지도사·청소년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 비율이 25.7%로 타지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근무경력	1년 이하일 경우 ‘지도자 개별적 접근 한계’가 20.6%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9〉 학교와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응답수)	비율(%)	케이스중 비율(%)
지도자 개별적 접근 한계	110	11.7	21.7
④ 학교 시스템(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114	12.1	22.4
지역 내 연결자원 부족	74	7.9	14.6
② 부족한 예산(재원)	130	13.8	25.6
⑤ 학교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학교밖 활동 선호하지 않음	124	13.2	24.4
교과 진도로 시간 확보 한계	49	5.2	9.6
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	170	18.0	33.5
강사연계 위주로 일회적인 프로그램 선호(지속가능성 담보 한계)	65	6.9	12.8
학교/교사의 협력의지 부족	98	10.4	19.3
기타	8	0.8	1.6
합계	942	100.0	185.5

(단위: %)



〔그림 8〕 학교와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

문항별 결과

Q9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정보를 상시적으로 학교에 제공하면 기관에서 학교와 협력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체적으로 '긍정 응답'이 7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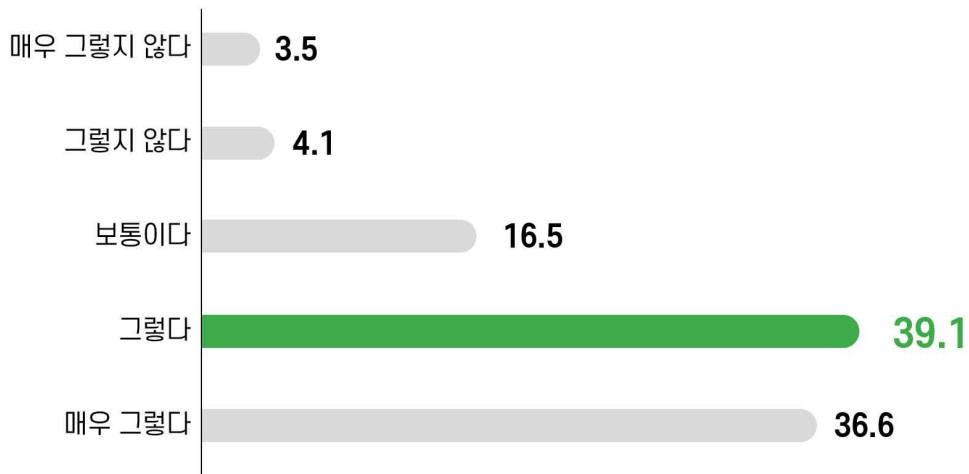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인천,경기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80.6%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표 10〉 청소년활동 정보를 학교에 제공시 학교연계협력에 도움이 되는지 정도 (N=508)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8	3.54
그렇지 않다	21	4.13
보통이다	84	16.54
그렇다	199	39.17
매우 그렇다	186	36.61

(단위: %)



[그림 9] 연계활동 제공 효과성 인식

문항별 결과

Q10 학교와 연계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지도자·기관 접근보다는 '중앙차원에서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구조 마련'(24.0%)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18.8%), '사업 운영 예산 지원'(13.0%),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 시스템 관련 지도자 대상 교육·워크숍'(1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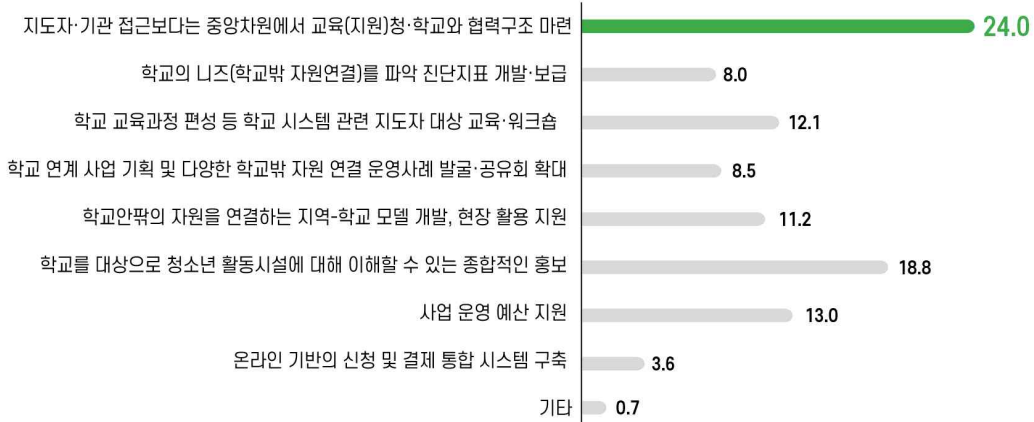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연령 20대의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의 비율이 23.1%로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표 11〉 학교와의 연계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 (응답수)	비율 (%)	케이스중 비율(%)
① 지도자·기관 접근보다는 중앙차원에서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구조 마련	325	24.0	64.0
학교의 니즈(학교밖 자원연결)를 파악 진단지표 개발·보급	108	8.0	21.3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 학교 시스템 관련 지도자 대상 교육·워크숍	164	12.1	32.3
학교 연계 사업 기획 및 다양한 학교밖 자원 연결 운영사례 발굴·공유회 확대	115	8.5	22.6
학교안팎의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학교 모델 개발, 현장 활용 지원	152	11.2	29.9
②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254	18.8	50.0
③ 사업 운영 예산 지원	176	13.0	34.6
온라인 기반의 신청 및 결제 통합 시스템 구축	49	3.6	9.6
기타	9	0.7	1.8
합계	1,352	100.0	266.1

(단위: %)



〔그림 10〕 학교와의 연계 협력 확대에 필요한 지원

문항별 결과

Q11

앞으로 미래사회에 더욱 많이 요구될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사를 발굴하고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지도자’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사업) 기획·운영 전문가(24.9%)’, ‘프로젝트의 가이드/촉진자로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지도자(20.8%)’, ‘청소년들의 작은 커뮤니티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의 지도자(14.9%)’, ‘기타(0.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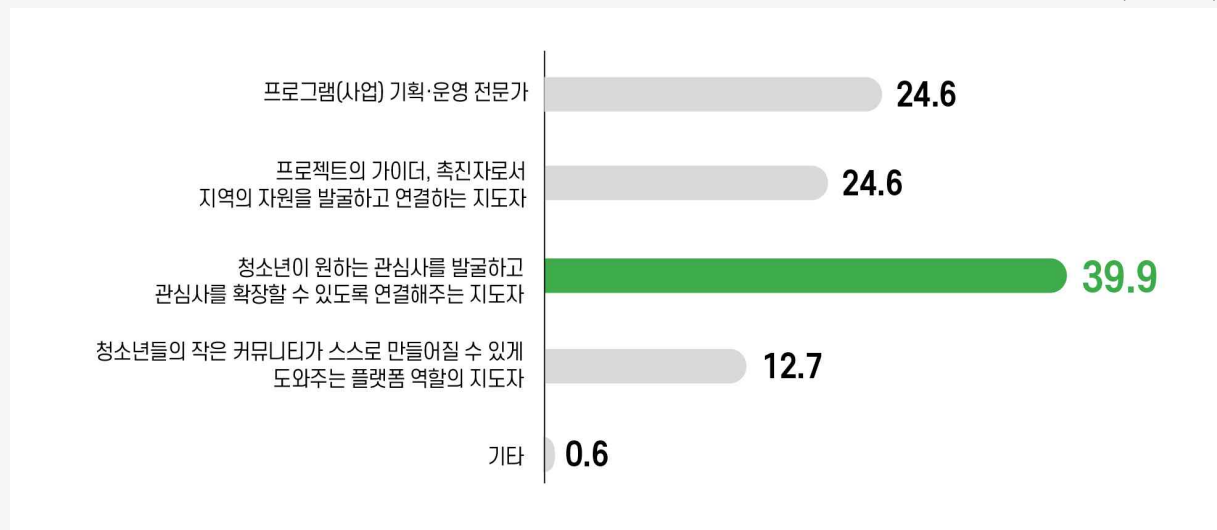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연령	20대의 경우 ‘청소년들이 원하는 관심사를 발굴하고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지도자’의 비율이 43.1%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지역별	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프로그램(사업) 기획·운영 전문가’의 비율이 30.1%로 타지역 대비 높았음.

〈표 12〉 미래사회에 요구될 청소년지도자 역할(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 (응답수)	비율 (%)	케이스 중 비율(%)
② 프로그램(사업) 기획·운영 전문가	231	24.9	45.5
프로젝트의 가이드/촉진자로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지도자	193	20.8	38.0
① 청소년이 원하는 관심사를 발굴하고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지도자	358	38.7	70.5
청소년들의 작은 커뮤니티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의 지도자	138	14.9	27.2
기타	6	0.6	1.2
합계	926	100.0	182.4

(단위: %)



[그림 11]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지도자 역할

문항별 결과

Q12

앞으로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의 미래 교육 모습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하는(22.1%)’이 가장 많았으며, ‘배움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18.6%)’, ‘소통하고 협업하는(17.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14.6%)’,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14.5%)’,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삶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12.6%)’, ‘기타(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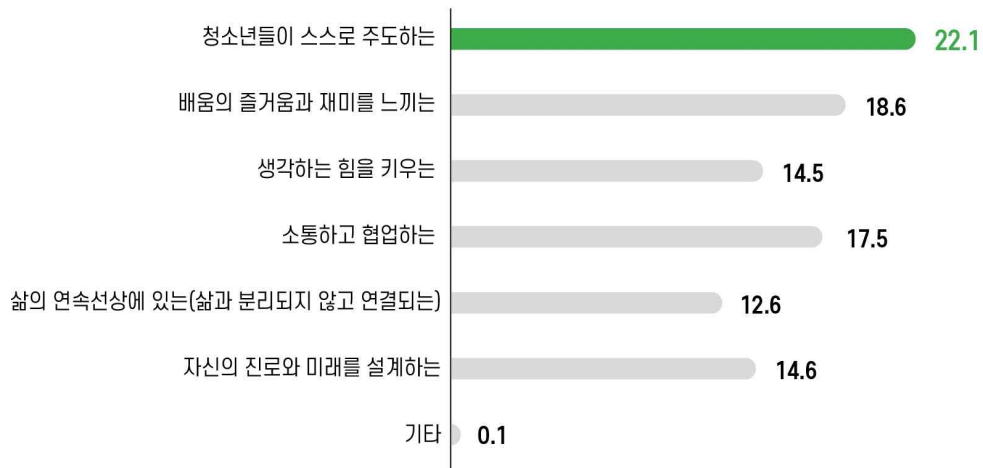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대구/경북과 강원/제주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하는’이 각각 27.1%로 타 지역 대비 높았음

〈표 13〉 미래교육 모습(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명)	비율(%)	케이스 중 비율(%)
①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299	22.1	58.9
② 배움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252	18.6	49.6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196	14.5	38.6
③ 소통하고 협업하는	236	17.5	46.5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삶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170	12.6	33.5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197	14.6	38.8
기타	2	0.1	0.4
합계	1,352	100.0	266.3

(단위: %)



[그림 12] 학교의 미래 교육 모습

문항별 결과

Q13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요?

‘사회정서(나와 타인의 감정인식, 타인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20.5%)’, ‘협업(20.5%)’, ‘창의력(14.3%)’, ‘진로개발(7.4%)’, ‘비판적 사고(6.6%)’, ‘디지털 역량(6.0%)’, ‘기타(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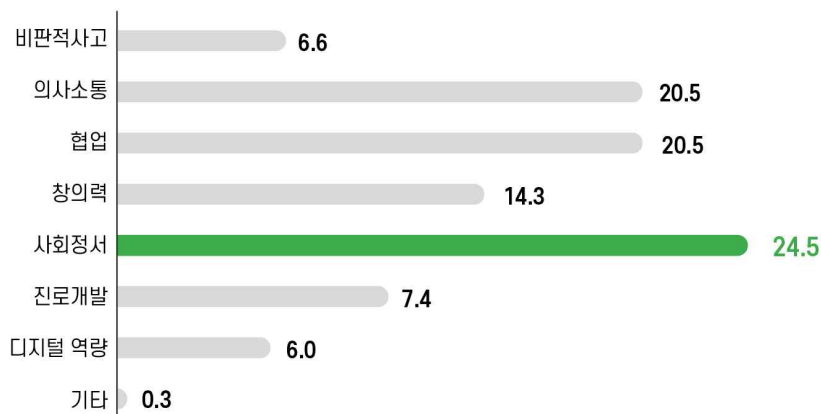
교차분석 결과

지역 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경우 ‘창의력’이 27.3%로 특히 높았음,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의사소통’이 24.7%로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근무경력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 때 ‘사회정서’ 비율이 29.5%로 타 경력대비 높게 나타남
시설유형별	청소년 특화시설은 ‘진로개발’이 17.6%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14〉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다중응답)

보기 항목	빈도(응답 수)	비율(%)	케이스 중 비율(%)
비판적사고	95	6.6	18.7
②의사소통	296	20.5	58.3
②협업	296	20.5	58.3
창의력	207	14.3	40.7
①사회정서	354	24.5	69.7
진로개발	107	7.4	21.1
디지털 역량	86	6.0	16.9
기타	4	0.3	0.8
합계	1445	100.0	284.5

(단위: %)



[그림 13] 미래사회 청소년 필요 핵심 역량